Book Band 10 . Journeys/Going Places - Trouble in the ROCKEIS

Cover Note?

- 스토리 북의 앞면과 뒷면에 집에서 쉽게 할 수 있는 읽기 수업 방법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Front Cover Note	
Before reading (책을 읽기 전)	책을 읽기 전에 아이들과 이야기를 나누어보세요 책의 앞 표지와 뒷 표지를 보세요. 로키가 무엇인지 이야기를 나누어 보세요-캐나다에 있는 산맥입니다. 라이언 가족이 겪은 모험에 대해서 아이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물어보세요. 어떤 일이 즐거웠을까요? 어떤 일이 잘못 되었을까요? 6 쪽과 7 쪽을 보고 톰의 블로그에 대해 이야기 해 보세요. 아이들이 블로그를 잘 모른다면, 블로그는 어떤 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읽을 수 있는 글을 올리며 사람들과 소통할 수 있는 웹사이트라고 설명해 주세요.- 톰이 휴가에서 있었던 일들을 사람들에게 이야기 해주듯이 말이에요. 그 날 있었던 일을 자세히 알 수 있는 어쩌면 일기처럼 쓸 수 있는 웹사이트입니다. 아이들이 자신에게 맞는 속도로 책을 읽을 수 있도록 격려해 주세요.
Tricky words (헷갈리는 단어)	Here are some tricky words that your child will read in this book: 다음은 아이가 책에서 처음 접하게 되어 어렵게 느낄 수 있는 단어입니다. cougar(쿠거)/beautiful(멋진)/cycled(자전거타다)/endangered(멸종위기에 처한) impossible(못하다)/clutched(기어를놓다)/slither(미끄러지다)/landslide(산사태)

Back Cover Note	
After reading (책을 읽은 후)	책을 읽고 난 뒤 아이들과 함께 얘기해보세요. 다음은 물어볼 수 있는 질문들입니다: • 여러분이 톰이었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어떤 느낌이었을까요?

	• 이 이야기가 마음에 드나요? 왜 마음에 드나요?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왜 그런가요? 아이들이 동화를 다시 읽을 수 있게 격려해주세요. 이것은 아이들이 읽기에 자신감을 갖게 하고 독해력을 향상시켜줍니다.
Other things to do (다른 액티비티)	아이들과 함께 캠핑을 가는 것을 상상해 보세요. 휴가에 무엇을 챙겨 갈건가요? 응급상황에 대비해 무엇을 가져가야 할까요?

Book Band 10 . Journeys/Going Places -
Trouble in the ROCKEIS

Storybook?

- 스토리 북 교재 내용에 대한 번역입니다. 수업 준비 시, 미리 참고하세요.

Storybook	
2pg.	1 장-꿈의 휴가 톰 리는 가족 웹사이트에 있는 자신의 블로그에 들어갔습니다. “올해의 휴가는 지금까지 중 최고가 될거다!” 아빠가 말했어요. “정말 꿈꿔왔던 휴가지.” 엄마가 거들며 말했어요. “아주 특별한 곳으로 갈거란다.”
3pg.	4 월 10 일 게시자; 톰 올해의 휴가를 계획하는 시간! 우리는 지금까지 갔던 휴가에서 찍은 사진을 둘러보았습니다. 보이듯이, 우리는 싸이클을 엄청 좋아하지요!
4pg.	가족들은 캐나다에 있는 로키 산맥으로 여행을 가기 위해 돈을 모아왔습니다. “야생 동물들도 볼 수 있어?” 에이미가 물었습니다. “볼 수 있을거야.” 톰이 말했습니다. 톰이 자기가 찾은 웹사이트를 가족들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쿠거도 있어!” 톰이 말했습니다. “멋지다.” 에이미가 쿠거를 보며 감탄했습니다. “정말 멋지네.” 엄마가 말했습니다. “그래도 야생에서 쿠거를 만나고 싶진 않아!”
5pg.	정말 멋있는 협곡을 따라 가는 사이클 길은 아빠가 찾았습니다. “정말 좋아 보이는데요!” 에이미와 탐 모두 좋아했습니다. “그리고 안전하기도 하지.” 아빠가 말했습니다. “가는 내내 지역가이드가 함께 할거야.” 클릭 한 번으로 로키산맥의 밴프 국립공원으로 가는 여행을 예약했습니다.

	“이런 것을 다 블로그에 올리면 되겠구나, 톰.” 엄마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6pg.	그게 톰이 할 일이었죠. 첫 날 작성자; 톰 우린 비행기에서 저녁과 아침을 먹었어요! 에이미와 난 국립공원에서 할 수 있는 것에 대한 영화란 영화는 몽땅 다 보았어요. 하지만 무지 긴 비행이었죠 -그리고는 또 밴프의 캠핑장으로 가는 버스를 타야했어요!
7pg.	둘째 날 작성자: 톰 강아지처럼 잠들었어요. 오늘은 루이즈 호수에 갔어요. 카누타기는 짱이었지만, 물이 얼음장 같았어요! 셋째 날 작성자: 톰 로키산맥을 헬리콥터를 타고 도는 것은 환상적이었지요! 버스보다 낫던데요! 내일 우린 새로운 캠프장으로 자전거를 타고 떠납니다. 빨리 가고싶어!
8pg.	2 장- 재앙이 덮치다 계획한대로 넷째 날을 시작했습니다. 아빠는 자전거와 가이드를 빌려왔습니다. “우리 가이드인, 에릭이란다.” 아빠가 말했습니다. “에릭은 로키를 아주 잘 알고 있지.” “다음 캠프장으로 가는 길은 정말 멋집니다.” 에릭이 가족들에게 말했어요. “운이 좋으면, 곰을 볼 수도 있을겁니다.”
9pg.	“우와!” 에이미가 말했어요. “내가 야생동물을 볼 수 있을 거랬잖아.” 톰이 말했어요. “안전한가요?” 엄마가 물었습니다. “그럼요.” 에릭이 말했습니다. “저와 함께 있기만 하시면 됩니다”

10pg.	에릭이 가족들을 길고 구불구불한 내리막길로 이끌자, 가족들은 매우 신이 났습니다. “1 단 기어에 놓고 브레이크를 잡으세요.” 에릭이 가족들에게 말했습니다. “곧 협곡 길에 도착합니다.”
11pg.	길은 대체로 평탄했고, 경치는 숨이 막힐 정도로 아름다웠습니다. 아침 내내 달리고, 바위 위에서 협곡을 바라보며 도시락으로 점심을 먹었습니다.
12pg.	“쿠거도 볼 수 있나요?” 톰이 에릭에게 물었습니다. “잘 모르겠어, 톰. 쿠거는 여기에서조차 멸종위기에 처해있어.” 에릭이 슬픈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쿠거를 보기 가장 좋은 시간은 사냥하러 나오는 해 질 무렵이야.” “그 시간에 우린 캠핑장에 있을거야.” 아빠가 말했습니다. “기억하렴. 여긴 그런 동물들이 사는 곳이야.” 에릭이 덧붙여 말했습니다. “그 동물들을 겁주지 않도록 해야 해.”
13pg.	점심을 먹은 후, 다시 길을 떠났습니다. 오후가 되자 모두 피곤해졌습니다. “우리 거의 다 왔나…” 에이미가 말을 시작했습니다. 말을 끝내기도 전에, 머리 위로 보이는 무언가가 놀라움으로 입을 다물게 했습니다.
14pg.	“나도 뭔가 본 것 같아요…쉿” 에릭이 모두들 조용하게 했습니다. “계곡에 곰이 있어!” 모두들 멈추어서 재빨리 자전거에서 내렸습니다. “따라오세요.” 에릭이 조용하게 말했습니다. “곰을 지켜 볼 만한 안전한 장소를 찾아봐요.”
15pg.	“물고기를 잡고 있네요.” 에릭이 속삭여 말했습니다. “여기서도 굉장히 크게 보이네요.” 톰이 말했습니다. 엄마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이걸로 보면 가깝게 보여.” 갑자기 어디선가 큰 소리가 났습니다. 아빠가 경계하며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방금 뭐였지?” 아빠가 물었습니다.
16pg.	별안간 바위와 돌들이 무너져 내려 톰와 엄마의 발을 쓸어 내려버렸습니다. “아악!” 톰과 엄마는 굴러서 강으로 미끄러지며 소리질렀습니다.
17pg.	3 장- 빠져나갈 수 없어

	톰과 엄마는 울퉁불퉁한 경사면을 따라 떨어졌습니다. 가시덤불을 지나더니-풍덩! 차가운 물이 톰을 깜짝 놀라게 했습니다. “엄마!” 톰이 헐떡이며 말했습니다. 톰의 심장이 공포로 빠르게 뛰었습니다. ”엄마, 어디있어요?”
18pg.	“톰!” 엄마의 머리가 물 속에서 까딱까딱하고 있었습니다. “기슭으로 헤엄쳐.” 엄마가 외쳤습니다. 그러나 급류 때문에 그럴 수가 없었습니다.
19pg.	물살은 점점 더 빨라졌고, 톰과 엄마는 소용돌이 치기 시작했습니다. 헬멧이 바위를 부수는 것을 느꼈습니다. “헬멧 때문에 살았다.” 톰은 벌벌 떨었습니다.
20pg.	엄마가 바위를 붙잡고 톰의 손을 잡아챘습니다. 그 때, 톰이 강둑 위에 곰 두 마리가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조심해요!” 톰이 외쳤습니다. 엄마가 재빨리 바위에서 손을 떼었습니다. “엄마 손 놓지마!” 엄마가 톰에게 외쳤습니다. 톰이 엄마의 손을 더 꽉 붙잡았습니다.
21pg.	물살은 더 거세게 흘러 엄마와 톰을 곰으로부터 멀리 떨어지게 했습니다. 톰은 절대 멈추지 않을 것만 같아 너무나 두려웠습니다. 마침내 점점 속도가 느려지더니 강물이 훨씬 잔잔해 졌습니다. 안심이 되니, 톰은 발에 강바닥이 닿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톰은 일어나서 엄마를 도와 기슭으로 올라갔습니다.
22pg.	“분명 산사태였을 거야.” 엄마가 헉헉거리며 말했습니다. “헬멧을 쓰고 있어서 천만다행이구나.” 어둑해지는 무렵, 톰이 무성한 풀숲 속에 무언가 미끄러지는 것을 본 것 같았습니다. “뱀이다!” 톰이 공포에 질려 외쳤습니다. 함께 풀 숲을 유심히 보았지만,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톰의 마음이 착각하게 만든 것이 분명했습니다.
23pg.	“다른 사람들은 별 일 없을까요?” 탐이 물었습니다. “산 기슭에 있는 것을 봤어.” 엄마가 말했습니다. “덤불 때문에 그 사람들은 떨어지지 않았을거야.”

	“아빠랑 에이미가 전화기를 갖고 있어요. 신호가 잡혀서 도와달라고 전화할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 톰이 말했습니다. “그리고 에릭이 조명탄을 가지고 있어.” 엄마가 말했습니다. “아까 하나가 터지는 걸 봤어. 걱정 마, 톰. 누군가 우리를 구하러 곧 와줄거야.”
24pg.	탐은 엄마가 아파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왜 그래요?” 톰이 물었습니다. “발목을 다쳤을 뿐이야, 괜찮아.” 엄마가 말했습니다. 그 때 덤불에서 무슨 소리가 들렸습니다. 주위를 둘러보다 그들은 저 멀리에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쿠거를 말이죠!
25pg.	에이미와 아빠, 그리고 에릭은 몸을 일으켜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엄마는 어디 있지? 어디있니, 톰?” 아빠가 소리쳤습니다. “강에 있어요!” 에이미가 울부짖었습니다. 아빠는 그들에게로 곧바로 달려가고 싶었습니다. “안돼요!” 에릭이 말했습니다. “물살이 너무 빨라요.”
26pg.	에이미와 아빠는 톰과 엄마가 수영을 잘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걱정되는 것은 마찬가지였습니다. 에릭이 가방에서 붉은 조명탄을 꺼내 들고, 쏘았습니다. 아빠는 전화를 시도해보았습니다. “여기는 신호가 잡히지 않아요.” 에릭이 말했습니다. “자전거를 타고 둘을 따라가 봅시다. 제가 나중에 돌아와서 나머지 자전거는 가져갈게요.”
27pg.	날은 거의 어두워졌고 쿠거는 점점 더 가까워졌습니다. 톰과 엄마는 겁에 질렸습니다. 톰과 엄마는 천천히 그리고 조용히 걸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곧 우리를 도우러 여기로 와 줄거야.” 엄마가 안심시키며 말했습니다. “알아요.” 톰이 애써 용감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28pg.	하지만 톰의 심장은 더 빠르게 뛰었습니다. “쿠거가 우리를 잡아먹으려 움직이고 있어.” 라고 톰은 생각했습니다. 톰은 쿠거가 다가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갑자기 큰 소리가 둘을 깜짝 놀라게 했습니다. 붉은 조명탄이 하늘로 쏘아 올려지자 쿠거가 펄쩍 뛰어습니다..

	“에릭이에요!” 톰이 외쳤습니다. 톰과 엄마가는 고개를 들어 에릭이 아빠와 에이미를 산기슭 아래로 이끌어 내려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29pg.	“괜찮아요.” 에릭이 외쳤습니다. “헤치지 않아요. 쿠거가 그냥 가까이에서 보고싶어서 그런거에요.” 아빠가 톰과 엄마가 괜찮은지 보려고 달려왔습니다. 에이미는 아빠 뒤에 바짝 붙어 따라왔습니다. 가족들이 다시 함께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30pg.	“너무 오래 걸려서 미안해요.” 에릭이 말했습니다. “산사태가 난 후 사이클 길이 바위로 뒤덮였거든요.” 에릭이 엄마의 발목을 확인했습니다. “X 레이를 찍어 봐야겠어요.” 그가 말했습니다. 그 때 이상한 소리가 하늘에 울려퍼졌습니다.
31pg.	“헬리콥터에요.” 에이미가 소리쳤습니다. 모두가 올려보았습니다. “구조대에요.” 에릭이 소리쳤습니다. “조명탄을 보았나봐요.” 모두 기뻐했습니다. “이 엄청난 모험을 블로그에 쓰면 되겠네.” 엄마가 웃으며 톰에게 말했습니다.
32pg.	4 월 10 일 작성자: 톰 구조대가 우리를 밴프의 캠핑장으로 데려다 주었어요. 헬리콥터에서 내려다 본 경치는 정말 최고였지요. 엄마가 좀 다치긴 했지만 할 수 있는 것은 많았어요. -들새 관찰, 승마를 하고 카누도 더 탔습니다. 웃긴 것은. 우린 이번 휴가를 지금까지 휴가 중 최고의 휴가로 계획했었지만 자전거 타기를 최고의 여행으로 계획한 적은 없다는 것이죠!